



“삶의 질이 높은 친환경 도시” 건설을 위한 노력, 구리시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전경

'94환경간곡(1994)	
목표치	1-81 95%
기준치	300 75%

33.3㎢의 면적에 약 20만명의 시민이 자립하고 있는 구리시는 우리나라 중서부에 있는 경기도의 북동부 지역에 위치해 있다. 서쪽으로는 아차산을 경계로 서울시 노원/중랑/강진구와 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왕송산을 경계로 남양주시와 마주보고 있고, 북쪽 역시 남양주시와 접해 있다. 남쪽에는 한강이 흐르고 있으며, 그 너머에 서울시 강동구가 있고 양 옆으로 서울시 송파구와 하남시가 있다. 구리시는 삶의 질이 높은 친환경 도시 건설을 목표로 자연 환경에서부터 수질, 대기환경보전은 물론 특히 폐기물 관리분야에서도 최선을 노력을 엮을 수 있다. 구리시의 폐기물 관리 핵심은 철저한 재활용품 분리 배출 및 수거 시스템의 정착으로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동시에 쓰레기처리비용을 절감시키고 또한, 구리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쓰레기소각에 따른 오염을 방지하며 구리타워를 구리시의 관광명소로 발돋움시켜 깨끗한 도시, 친환경 도시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1년 12월에 완공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은 현재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쓰레기를 매일 200톤씩 처리하고 있다. 높이 100미터의 연돌을 활용하여 한강과 아차산 등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타워를 설치하였다. 또한 주변 37,512㎡(약11,347평)부지에 시민들이 사계절 이용가능한 실내수영장, 사우나시설, 인조잔디 축구장(1면), 게이트볼장(3면), 농구장 겸용 플라시케이트장(1면) 등 체육시설과 휴게공간을 설치하는 등 기존 소각장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 시민 편의시설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다.

한편, 정부의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추진에 대비하여 2001년 9월에 재활용선별장을 설치 운영하여 폐형광등, 폐간전지 및 PSP(컴퓨터용기나 일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를 실시하였으며, EPR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03년부터는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 용기포장재, 가전제품의 분리수거 및 재활용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왔다. 구리시의 재활용 노력을 살펴보면, 먼저 폐기물관리예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분리수거대상품목을 확대(현재 10개품목 : 종이류, 캔류, 고철류, 의류, 폐형광등, 영농폐기물, 플라스틱류, 일회용비닐봉투, 필름류포장재)하고, 주민 순회교육, 홍보 우표나 리플렛 제작 및 배포, 유선 또는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방법과 아이디어로 주민 교육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며, EPR 수거용 링과 전용봉투를 자체 제작, 배포하는 등 분리 배출 및 수거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홍보전략과 함께 원활한 수거와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활용 선별장의 규모, 시설, 인력 등을 대폭 확충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할 보급 확대, 우유팩과 생수병 등 교환센터 운영 등 다각적인 재활용 체계 모색에 힘써왔다.

특히, 1994년 구리시 자체 쓰레기매립장 사용이 종료되면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분리수거할 수 있는 장소와 매립의 최소화, 감량화를 위한 시설로서 설치된 쓰레기 적환장은 이후 구리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건설로 순수 재활용품 선별작업장으로서의 역할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이에따라 폐기물적환장을 확충하여 주로 대형폐기물이나, 형광등, 스티로폼 위주로 선별/보관을 본격 실시하는 한편, 2001년도에 추가로 약 520여평 부지(건물면적 약 290평)에 선별·집하장을 신축하여 용기포장폐기물 등의 선별, 압축, 보관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점차 생활폐기물 자원화가 크게 확대되어 왔다. 지속적인 분리배출 및 수거 확대, 선별 능력 확충 등을 통하여 현재 폐기물 적환장에서는 하루 20톤을, 선별·집하장에서는 1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국가 재활용 정책의 안정화와 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구리시는 주민과의 조화와 협력하여 폐기물 관리정책을 펴나가면서, EPR 제도하에서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독창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이 돋보이고 있다.



구리시 선별 집하장 내부



재활용품 선별작업중